
실패한 애도의 기록, 「강도몽유록(江都夢遊錄)」

김경미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목 차〉

- I. 서론
- II. 「강도몽유록」의 순절 여성 재현
- III. 다른 기록 속의 순절 여성 재현
- IV. 결론 : 실패한 애도, 그럼으로써 확장되는 의미

국문초록

이 글은 「강도몽유록」과 묘지명 등 다른 기록들을 비교하여 「강도몽유록」의 순절 여성 재현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특히 이 글은 전쟁에서 죽은 시신들을 수습하기 위해 강화도로 간 청허선사가 꿈에서 정절을 지키다 죽은 순절 여성들의 모임을 엿보고 그냥 돌아오는 결말에 주목한다. 이 글은 이러한 결말이 애도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보고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강도몽유록」에 재현된 여성들의 발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묘지명 등 다른 기록들과 비교했다. 「강도몽유록」 속의 여성들은 무능한 조정과 가장을 공공연히 비판하며 순절이 당연하다고 통곡을 멈추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더 이상 정절 이념을 내면화한 유교 여성 주체가 아니고, 그들에게 정절 수행은 더 이상 위로도 애도도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키워드 : 강도몽유록, 애도, 애도 불가능, 순절 여성, 유교 여성 주체, 절의, 강화도

1. 서론

「강도몽유록」은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한문소설이다. 병자호란(1636) 직후 강화도 갑곶 연미정을 배경으로 병자호란 당시 죽은 여성들이 등장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작품의 주된 내용이다. 창작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병자호란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¹⁾ 이 작품은 매장해 줄 사람이 없는 시신들을 수습하기 위해 강화도로 간 청허선사가 연미정 가에 움막을 짓고 지내던 어느 날 설핏 잠이 들어 꾸는 꿈으로 시작된다. 청허선사가 옛본 자리에는 당시 조정의 주요 관직에 있던 사람들의 부인들이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비들의 부인, 그리고 기녀가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청나라 군대의 침입으로 순절한 여성들로 순절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원귀(冤鬼)의 모습으로 등장해 슬픔과 원망을 드러내며, 영예로운 죽음이라는 기녀의 말에는 통곡으로 응답한다. 이는 묘지명이나 열녀전의 순절 여성재현과는 다르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은 전쟁의 책임을 따지면서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조정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절의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며 미처 다 누리지 못한 자신들의 삶을 슬퍼한다. 그런가 하면 남편을 비난하다가 안쓰러워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아들을 위해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절의를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직책 없이 나라에서 받은 것도 없으면서 원로 재상을 따라 죽은 남편을 원망하기도 한다. 이처럼 「강도몽유록」에는 한 가지로 통일하기 어려운 여러 목소리가 섞여 있다. 그러나 병자호란 당시 무능하게 대처한 가부장과 조정을 직접 비판한다는 점, 비판의 주체가 고위 관료의 아내나 며느리를 비롯해서 무명의 선비의 아내들이라는 점, 절의를 위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슬픔과

1) 김정녀 (2009), 「신자료 국문본 〈강도몽유록〉의 이본적 특성과 의미」, 『고소설연구』, 27, p. 9. 작품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두루 고려하여 1640년~1644년 사이에 창작된 것으로 보았다.

고통을 토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강도몽유록」을 다룬 연구들도 이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작품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무능한 남성 권력과 정치 권력을 비판한 것인지, 여성의 목소리는 당대의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 동원된 장치에 불과한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다.

김기동이 이 작품을 처음 소개하면서 절사한 부인들의 대답을 빌어 조정 신하들의 불충과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한 작품이라고²⁾ 언급한 이래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여성의 목소리에 주목한 것으로 이 작품이 병자호란 때 죽은 여성들의 육성을 재구함으로써 전쟁의 참상을 극적으로 부각시키고 당대 조정의 실정과 이념의 추락을 통렬하게 비판했다는³⁾ 입장이다. 두 번째는 이 작품이 전쟁에서 죽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하지만 작품의 의도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데 있기보다는 당대 정치를 비판하거나⁴⁾ 특정 가문의 여성이 자신의 남편이나 아들을 옹호하는⁵⁾ 데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셋째는 순

- 2) 김기동 (1965), 「〈江都夢遊錄〉攷」, 『논문집』, 2, p. 12.
- 3) 조혜란 (2001), 「〈강도몽유록〉 연구」, 『고소설연구』, 11, p. 353; 김경미 (2022), 『플롯의 발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p. 100.
- 4) 정충권 (2007), 「〈강도몽유록〉에 나타난 역사적 상처와 형상화 방식」, 『한국문학논총』 45, 2007, p. 70; 김정녀 (2010), 「병자호란의 책임 논쟁과 기억의 서사」, 『한국학연구』 35, p. 230. 정충권은 작가가 여성들의 원혼들을 등장시킨 했지만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그녀들의 부조리한 죽음 자체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여성들의 말을 통해 강화 패물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던 정치 세력의 권력성을 비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정녀는 몽유록이라는 양식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강도몽유록」의 작가가 강도에서 순절한 여성들의 입을 빌려 억압된 기억들을 소환해서 공적 기억을 비판하게 했다고 보았다. 즉 꿈의 형식을 빌어 공적 기억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이야기를 하게 했다는 것이다.
- 5) 김일환 (2013), pp. 280~281. 장진엽 (2020), 「〈강도몽유록〉 속 여성 발화자의 기능과 그 의미」, 『한문학논집』, 57, pp. 258~259. 김일환은 숨김과 드러냄을 통해 강화도의 패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변호하는 텍스트로 읽어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김유 가문의 여성들이 한 말은 아들 혹은 남편을 변호하는 것처럼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벌론'과 '척벌론'이 대두되면서, 호란 때의 행적에 대한 평가가 난무할 때, 그런 논의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주장한 작품이라고 추정했다. 장진엽은 이 작품이 여성 화자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몽유록과 분명히 그 성격을 달리하지만, 이 여성들은 자신의 가문을 대리/대표하여 발언하고 있으며 여성 '주체'의 형성과는 관련이 없

절을 강조하는 텍스트로 보는 입장이다.⁶⁾ 이상에서 보듯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여성들의 발화 태도와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즉 작품에 전면화되어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쟁으로 죽어간 여성들의 경험과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작가의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차용된 장치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작품을 둘러싼 평가의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여성들의 발화 내용에도 주목하지만 죽은 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강화도로 간 청허선사가 죽은 자들을 보고 그냥 돌아오다 꿈에서 깨는 결말에 특히 주목한다. 청허선사는 이들의 시신을 수습해 애도하지 못했고, 이는 애도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죽은 자들은 순절한 부인들로 여기에는 정려를 받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공적 애도까지 받은 인물들이었다. 그런데도 「강도몽유록」은 이들을 왜 수습되지 않은 시신들로 재현하고 있으며, 끝내 수습되지 못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가? 애도의 실패로 작품을 마무리함으로써 작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강도몽유록」에 재현된 여성들의 발화 내용을 분석하고 작중 인물과 관련된 묘지명 등 다른 기록들에서 작품 속 인물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강도몽유록」이 왜 애도에 실패하는 것으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애도의 실패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 미상의 이 작품은 현재 한문 필사본 6종과 국문 필사본 1종이 전한다.⁷⁾ 이 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강도몽유록」을 중심으로 논의

다고 보았다.

- 6) 장경남 (2003), 「병자호란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여성 수난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1, p. 206, 백지민 (2016), 「순절 담론의 서사화, <강도몽유록>」, 『용봉인문논총』, 49, p. 130. 장경남은 이 작품이 유교적 덕목 가운데 하나인 부덕을 강조함으로써 호란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유교 도덕률을 다시 세우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백지민은 이 작품이 단순히 순절한 개개인의 사연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순절 담론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보았다.
- 7) 「강도몽유록」의 이본 상황과 국문본에 대해서는 김정녀 (2009), 「신자료 국문본 <강도몽유록>의 이본적 특성과 의미」, 『고소설연구』, 27, 2009 참조.

를 진행하되 오류를 교정한 교감본과 번역본을 참고했으나⁸⁾ 번역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II. 「강도몽유록」의 순절 여성 재현

꿈속에서 청허선사는 밤기운이 처량하고 심상치 않아 달빛을 받으며 걷던 중 울음소리와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것을 듣고 찾아갔다 뜻밖의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한곳에 놀라고 두려워하며 허둥대는 여성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은 “한 길 남짓한 밧줄이나 한 자쯤 되는 칼날에 연약한 머리가 묶여 있기도 하고 피가 뼈 조각을 적시고 있기도 하고, 머리가 모두 깨져 있기도 하고, 입과 배에 물을 머금고 있기도⁹⁾”한 참혹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부인이 눈물을 머금은 채 말을 시작하자 모여 있던 여성들이 돌아가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펼쳐진다.

여기 모인 여성들은 누구인가? 작가는 이들의 성명을 직접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 이들이 전쟁 당시 자결한 여성들이며 일부 여성의 경우 그들의 아버지나 남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발화한 내용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들은 병자호란 당시 체찰사였던 김류(金瑬, 1571~1648)의 부인이자 강도 수비를 맡았던 강도 감찰사 김경징(金慶徵, 1589~1637)의 어머니 유씨(柳氏), 김경징의 부인 박씨, 김류의 손자 김진표(金震標, 1614~1671)와 손자며느리 정씨, 정백창(鄭百昌, 1588~1635)의 부인 한씨, 윤방(尹昉, 1563~1640)의 첩¹⁰⁾, 장신(張紳, ?~1637)의 며느리, 강홍립(姜弘立, 1560~1627)의 부

8) 교감본으로는 박희병 (2005),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pp. 516~533. 번역본으로는 박희병·정길수 (2013), 『이상한 나라의 꿈』, 들베개, pp. 81~104.

9) 박희병 (2013), pp. 82~83, “慣其視, 則丈餘之索, 尺許之鋒, 或係於纖頭, 或血於粉骨, 或頭腦盡破, 或口腹含水.”

인, 윤선거의 아내 이씨, 미상의 노부인과 부인, 선비의 아내이다. 그 사이를 배회하던 기녀를 포함하면 모두 15명이다. 여기에는 김류 집안의 여성들 3명, 정백창의 부인이자 인열왕후의 언니인 한씨, 윤방의 첩, 장신의 며느리 등 인조반정의 공신으로 고위 관료를 지내거나 강화도 패물에 책임이 있는 집안의 여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후금에 투항한 강홍립의 부인과 척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윤항(尹煌, 1571~1639)의 며느리이자 윤선거의 아내인 공주 이씨, 죽지 않고 오랑캐를 따라간 동생을 비난하는 부인, 김상용과 함께 죽은 남편을 안타까워하는 부인, 자신이 죽은 것을 남편이 모를까 봐 염려하는 부인, 선비의 아내가 등장한다. 기녀 한 사람을 제외하면 이들은 모두 양반 여성들이다. 이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가 자살자가 집중된 곳이고 열녀가 대량으로 나왔기 때문이다.¹¹⁾

처음 말을 시작한 유씨는 자신이 죽은 것이 자신의 남편(김류) 때문이라고 하며 남편을 비판한다. 유씨는 남편이 공론을 살피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 아들을 강도 검찰사로 임명했는데 아들은 군사 일을 하지도 않고 부귀에 빠져 경치나 즐기다 죽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들이 죽임을 당한 건 당연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잘못이지 아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유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박씨가 말을 시작한다. 박씨는 남편 김경징이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중책을 맡고는 천혜의 지형만 믿고 군사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하며 남편이 사형당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남편 밑에 있던 강도 검찰부사 이민

10) 김일환 (2013), pp. 266~270. 김일환은 이 여성을 윤방의 첩이 아니라 당시 승지였던 한흥일(韓興一)의 후처 완산 이씨로 보고, 그 근거로 완산 이씨가 강화도에서 순절했다는 점, 이 여성이 말하는 남편의 행적이 한흥일의 행적과 유사하다는 점, 세 이본에서 한흥일의 처로 명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윤방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있다. 이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임금이 믿고 원손과 비빈을 맡겼다(天有所恃, 付之元孫妃嬪)”고 했는데 이는 『연려실기술』 권25, 인조조 고사본말의 기록과 같다. “원임대신 윤방과 김상용에게 명하여 종묘사직의 신주와 빈궁과 원손과 봉림·인명 두 대군을 모시고 강화도로 들어가게 하였다(命原任尹昉金尙容, 陪 廟社主及嬪宮元孫鳳麟坪兩大君入江都).” 따라서 윤방의 첩으로 보았다.

11) 강명관 (2009), 『열녀의 탄생』, 돌베개, p. 337.

구, 도원수 김자점 같은 인물들이 살아남고 남편만 죽은 것이 원통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김경징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김류 집안의 여성들은 김경징이 죽은 것을 당연하다고 말한다. 박씨에 이어 김진표의 부인 정씨가 왕후의 조카로 화려한 생활을 하며 남편과 즐거움을 누렸으나 전쟁이 나서 죽게 된 기박한 운명이 슬프다고 한다. 정씨는 남편에 대해서 “식견이 밝지 못해 부모님을 영원히 잃었다”¹²⁾고 하며 그 한없는 슬픔과 고통스러운 마음은 자신도 잊을 수 없다고 동정을 표한다. 이어서 말하는 이는 정백창의 부인이자 정씨의 어머니이며 왕후의 언니인 한씨이다. 그녀는 아들의 강요로 죽었다고 하면서 남이 권해서 죽은 뒤에 정려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냐고 반문한다. 당시 김진표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죽기를 권했고, 한씨의 아들도 어머니에게 죽기를 강요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윤방의 첩은 신주를 받들고 가다가 달아난 남편 윤방을 비판하고 그런 비겁하고 못한 남편 때문에 정절을 지켜 자결했음에도 지옥에 가게 되었다고 원통해 한다. 장신의 며느리는 강도 유수(江都留守)였던 시아버지가 게을리 낮잠이나 자고 술에 취해 지내느라 강도를 굳게 지키지 못했다고 하며 “여자인 나도 부끄럼”¹³⁾다고 시아버지를 비난한다.¹⁴⁾ 또 한 노부인은 남편이 온 집안을 이끌어 강화도로 피난하게 했다면서 “온 집안 식구가 죽은 환란은 낭군의 잘못된 처사 때문”¹⁵⁾이라고 남편의 잘못된 판단을 비판하고 깊은 한을 토로한다. 하지만 자신은 절개를 지켜 죽었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하며 오랑캐 땅으로 끌려간 동생이 죽음으로 절개를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어서 말을 하는 노부인도 아들을 원망하고, 강홍립의 부인도 강홍립이 청에 투항한 것을 비판한다.

12) 박희병 (2005), p. 520. “眼且不明, 永失父母.”

13) 박희병 (2005), p. 522. “余是女子, 而猶有愧焉.”

14) 장신은 장유(張維, 1587~1638)의 아우로 병자호란 당시 강도 유수 겸 주사대장(舟師大將)이었으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왕실과 노모를 버리고 달아난 인물이다. 이후 장신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조정은 공로를 인정하여 자진(自盡)하게 했다.

15) 박희병 (2005), p. 525. “一家死亡之患, 卽郎君處事之誤也.”

남편, 아들, 시아버지에 대한 비판은 조정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아들을 따라 강화도로 피난 와서 죽은 노부인은 피난지를 잘못 선택한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강도 수비의 책임자들과 관료들을 비판한다.

대부도로 피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을 텐데 강도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수군을 훈련시킬 자, 군사를 검찰할 자는 누구였습니까? 수군을 훈련시킬 자는 장신이요, 군사를 검찰할 자는 김경징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종묘사직을 호위하는 자, 부귀영화를 좇던 자는 어떻습니까? 종묘사직을 호위하는 자는 충성심이 적었고, 부귀영화를 따르던 자는 하늘이 엄히 버렸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들은 저를 위험한 곳으로 보내 제 명을 다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아내만 구해서 죽지 않게 했을까요? 아아, 남군이 죽지 않았다면 전 살 수 있었을 겁니다.¹⁶⁾

노부인은 직접 주사대장과 강도 검찰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부귀한 자들의 행태를 비판한 뒤 아들까지 비판한다. 강화도로 피난 갔다가 죽은 부인도 임금과 신하의 지략이 부족했다고 비판하고, 마니산에 숨었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부인은 원로 재상을 따라서 죽은 남편에 대해 높은 관직에 올라 부귀를 누린 사람이야 사직이 위태로울 때 절의를 지켜 죽는 게 옳지만 직책도 없고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도 없으면서 왜 죽었느냐고 원망한다.¹⁷⁾ 김류의 며느리 박씨도 남편이 군사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사형당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밑에 있던 강도 검찰부사 이민구(李敏求, 1589~1670), 도원수 김자점(金自點, 1588~1651) 같은 인물들이 살아남은 것이 원통하다고 한다. 이는 조정이 상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에 나서서 말한 기녀도 나라의 수치가 컸

16) 박희병 (2005), p. 523. “大阜避亂亦足妙，而從入江都者，未知其練習舟師者耶，檢察軍務者耶，練習舟師，則張紳在也，檢察軍務，則慶徵在也，然則扈衛宗社者耶，追隨繁華者耶，扈衛宗社，則忠心少也，追隨繁華，則天喪重也，有何所關，而入於危境，使我齒髮，未享天年，而偏求其妻，俾不身死，嗚呼郎君，幸不獲死，老我之生，亦可必也。”

17) 박희병 (2005), p. 526. “而惜乎郎君，生值亂世，不察時勢，虛在京城，風雨一驚，避入江都，遂與台座之老，同作撲燈之蛾，噫！早得青雲，永享富貴者，社稷將亡，節死爲可，哀我郎君，有何官任，而入於海外之危境，有何國恩，而忘其父母之遺體乎？不堪哀怨，長太息也。”

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신하는 만에 하나도 없었”¹⁸⁾이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여성들은 남편, 아들, 시아버지, 그리고 조정의 관료들을 비판하지만 자신들이 정절을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 김류의 부인은 기꺼이 자결했다고 하고, 김경징의 부인 박씨도 목숨을 잃은 게 아깝지 않다고 한다. 강홍립의 부인 역시 자결한 데 대해 조금도 가련해 할 것이 없다고 하며 자결로 정절을 지킨 부인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고 그 낮은 천당에 들어갈 것이니 살든 죽든 빛날 것이라고 한다. 윤선거의 부인 이씨는 당시의 무능한 관리들을 비판하고, 하루아침에 전란이 일어나 백성들이 유린당했는데 어떻게 자신 같은 연약한 여인의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겠느냐고 하며 “기꺼이 자결하고 낮이 구천에 들어가니 이름은 이미 향기로워 영광스러웠다”¹⁹⁾고 한다. 이씨는 남편 윤선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시아버지 윤희 덕분에 극락세계에 가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윤선거는 병자호란 당시 많은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이 작품에서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씨의 발언 부분이다. 이씨는 발언 분량도 많은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윤선거는 말하지 않고²⁰⁾ 대신 시아버지의 의리로 인해 극락세계에 가게 된 경위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말하는 선비의 부인도 역병에 걸린 남편을 떠날 수 없어서 남편 곁을 지키다가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절의를 지키기 위해 목을 매 자결했다고 한다. 그녀에게 염라대왕은 “앞서 조부가 있고 손녀가 그 뒤를 이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²¹⁾고 하며 조부의 절의와 손녀의 절의를 칭찬했다고 한

18) 박희병 (2005), p. 532. “國耻方深, 而忠臣義士, 萬無一人.”

19) 박희병 (2005), p. 528. “甘心自決, 魂入重泉, 則名已香矣, 豈無光賤.”

20) 윤선거는 강화도로 피난하며 위급해지면 아내와 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성이 함락되자 이씨는 자결했으나 윤선거는 죽지 않았다. 심지어 윤선거는 종의 옷으로 갈아입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져 강도부노(江都俘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이후 윤선거는 이를 자책하며 관직에 나가지 않았으나 송시열은 윤선거의 이러한 행적을 탐탁치 않게 여겨 윤선거 사후 묘갈명을 무성의하게 써주었고 이를 수정해 달라는 아들 윤증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일을 빌미로 송시열과 윤증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유명한 회니시비(懷尼是非)이다.

21) 박희병 (2005), p. 530. “先有其祖, 繼有是孫, 則豈不美哉, 豈不美哉.”

다. 이 같은 칭찬을 듣고 영원한 안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어린 나이에 죽었어도 한스러울 게 없다고 하면서도 이 어린 부인은 “이별의 눈물이 언제나 마를까? 이별의 한은 커져만 간다”²²⁾고 슬퍼한다. 이 말이 끝난 뒤 그 자리에 있던 여성들은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한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바꾸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 모임에 끼지는 못하고 배회하던 이 여성은 초승달 같은 눈썹에 샛별 같은 눈, 풍성한 머리가 아름다운 선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자신을 기녀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자신이 노래와 춤으로 이름이 알려진 기녀였고, 절의를 귀하게 여겨 한 낭군을 모시게 되었으며, 뜻밖의 풍파로 죽게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리고 자리에 모인 부인들의 절의는 하늘도 사람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하며 영예로운 죽음을 택한 것이라고 칭송한다.

기녀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때로는 신체가 훼손되거나, 때로는 고운 자태로, 때로는 영웅의 풍모를 지닌 여장부로 등장한다. 신체가 훼손된 이들은 가슴에 붉은 피가 얼룩져 있거나 몸이 상하고 뼈가 부서져 피가 낭자하거나 입안에 물을 머금고 있어 이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원통하게 탄식하며 말하거나 비분강개하며 자신의 원한을 털어놓는다. 몽유록이라는 허구적 설정을 빌어 작가는 다른 기록에서 보기 어려운 직접적이고 생생한 형상으로 순절 여성들을 재현하고 있다. 그것도 다양한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그런데 「강도몽유록」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다른 기록들을 보면 「강도몽유록」의 여성 재현과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차이를 통해 「강도몽유록」이 갖는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III. 다른 기록 속의 순절 여성 재현

「강도몽유록」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대개 실존 인물들이다. 그 중에는

22) 박희병 (2005), p. 530. “別淚何乾，離恨倍增.”

중신이나 유명 가문의 여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중 몇몇 인물은 사후 행장이나 묘지명이 남아 있어 「강도몽유록」에 재현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현재 찾을 수 있는 것은 김류의 부인 유씨와 정백창의 부인 한씨, 윤선거의 부인 이씨에 대한 기록이다.

먼저 잠곡 김육(金堉, 1580~1658)이 쓴 김류 묘지명에 재현된 유씨의 기록과 「강도몽유록」의 유씨 발언 부분을 보자. 위는 김류의 손자 김진표가 가져온 가정(家狀)을 바탕으로²³⁾ 김육이 쓴 묘지명이고, 아래는 「강도몽유록」 부분이다.

부인은 진주 유씨로 좌찬성을 지내고 진원부원군에 봉해진 유근의 딸이다. 부인은 타고난 자질이 뛰어났으며 아름다운 행실을 갖추고 있었다. 시집오기 전에 이미 『소학』과 『내훈』을 읽었으며, 상제례, 제의, 의서, 약방 등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일찍이 진원부원군이 말하기를, “내 딸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성취한 바를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반정(反正) 당시 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논에 참여하였다. 거사하던 날 공의 부자가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경징이 떠나기에 앞서 얼굴빛이 변했다. 그러자 부인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설령 대사가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너희 부자가 충(忠)을 위해 죽는 것이니, 죽은들 무슨 한이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중문에서 전송한 뒤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단도를 가지고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다렸다. 반정한 뒤에 상이 자전(慈殿)을 위해 잔치를 열었는데 부인이 명부(命婦)로서 참여했다. 자전이 반정하던 때의 일을 물었는데 공신들의 부인이 대답을 잘 못 했다. 부인이 두 번 절한 뒤 앞으로 나아가서 전말을 상세히 아뢰니 자전이 몹시 기특하게 여겼다.

병자년의 난리 때 부인이 강도로 들어갔는데 남한산성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밤낮으로 통곡했다. 조카 유정(柳頤)이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 묻자 부인이 단도를 잡고 대답하기를, “내가 장차 어

23) 김육, 「영의정 승평부원군 증시문충공묘지명(領議政昇平府院君贈諡文忠公墓誌銘)」, 『삼국선생유고』 권12, p. 11, 한국고전번역원 DB, “遂據狀中之辭. 序次其年月日. 而爲之銘.”

디로 가겠는가. 오직 이 칼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고 손자인 김진표를 돌아보며 “죽는 것이 혹 태산보다 중할 수도 있고 기러기 털보다 가벼울 수도 있는 법이다. 기러기 털처럼 목숨을 버리는 때가 지금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공에게 편지를 써서 부치기를, “만약 이곳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게 된다면 저는 아들며느리, 손자며느리와 함께 이곳에서 자결할 것입니다.” 하고 마침내 그 말대로 했다. 향년이 65세였다. 조정에서 정려문을 내렸다.²⁴⁾

나라님이 피난했으니 그 처참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아, 제가 운명을 달리한 건 하늘의 뜻입니까, 귀신의 뜻입니까? 그 이유를 찾으면 이르는 답이 있으니 바로 내 남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남편은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체찰사의 임무까지 맡았는데 공론을 살피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서 강도의 막중한 임무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아이는 부귀에 빠져 아름다운 경치나 즐기며 앞날에 대한 계획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니, 군사 일에 대해 무슨 아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강이 깊지 않은 것이 아니요,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었지만,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으니 죽임을 당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니 그 아이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아아 내 운명이 기박해서 기꺼이 자결한 것은 실로 당연한 일이니 조금도 한스러울 게 없습니다.²⁵⁾

김육은 인조반정과 병자호란 당시 유씨의 행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그

24) 김육, p. 10. “夫人晉州柳氏，左贊成晉原府院君根之女也。天姿穎悟，懿行純備。未笄，已讀小學內訓，如喪祭禮祭儀醫書藥方，亦皆慣涉。晉原嘗曰，使吾女而男，則其所成就，不可量也。反正之時，終始預聞其議，舉事之日，公父子將赴軍前，慶徵臨去色變，夫人厲聲曰，勿以我爲念，設使大事不成，爾父子當死於忠，死亦何恨。送于中門，身著新衣，持短刀，上園中以待。反正之後，上進豐呈于慈殿，夫人以命婦入侍，慈殿下問學義時事，諸功臣夫人莫能對，夫人再拜進前，備悉顛末，慈殿甚奇之。丙子之變，夫人入江都，聞山城危急，晝夜號哭，姪柳頤來問去向，夫人持短刀而答曰，吾將焉往，唯有此刀耳，顧謂孫震標曰，死或重於泰山，或輕於鴻毛，鴻毛之擲，其不在於此時乎。爲抵公書付之曰，若離此一步地，則吾與子婦孫婦，當自決於此，卒如其言。享年六十五。朝廷棹楔其門而旌之。”

25) 박희명 (2005), p. 517~518. “宗社蒙塵，慘不足道，而嗟子殞命，天耶鬼耶。苟求厥由，則致之者有，郎君是也。何則。台輔其位，體府其任，而莫察公論，偏懷私情，江都重任，付之嬌兒，其兒也，欣有富貴，樂醉花月，遠慮渾忘，軍務何知。江非不深，城非不高，而大事已謬，死亦宜矣。然由父之過，在爾何責。嗟余薄命，甘爲自決，固所宜也。”

충성과 절의를 강조했다. 묘지명에 의하면, 유씨는 반정에 관여해서 과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뒤에 자전(慈殿) 앞에서 당시의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남한산성이 위급해지자 남편에게 편지를 남긴 뒤 자결했으며 이후 조정으로부터 정려를 받았다. 유씨는 정치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충성과 절의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로 재현되어 있다. 이는 「강도몽유록」에서 남편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드러낸다. 유씨는 자신의 죽음이 남편 때문이고 아들의 죽음도 남편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비판한 뒤 자결은 당연한 것으로 한스러울 게 없다고 한다. 묘지명은 유씨가 조카나 손자, 그리고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자결을 결심하는 모습을 부각해 기술했다. 여기에는 김진표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자결을 요구했다는²⁶⁾ 향간의 소문을 부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묘지명과 「강도몽유록」에 재현된 유씨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강도몽유록」에서는 유씨가 남편이 사사롭게 아들에게 중책을 맡긴 것을 비판하고, 아들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직접 비판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김류 집안 부인들의 뒤를 이어 발언하는 한씨에 대한 기록으로는 태당 이식(李植, 1584~1647)이 쓴 묘지가 남아 있다.

아아, 나의 벗 고 관찰사 정공 백창 덕여가 죽은 다음 해인 병자년에 금나라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오자 정부인 서원 한씨는 자녀를 따라 강도로 피난을 갔다. 정축년 정월 강도가 함락되었을 때 산성은 이미 투항해서 오랑캐가 왕족과 조정 관리들의 가족은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부인은 인열왕후의 언니로 즉시 빈궁에 들어가 보호하여 면할

26) 『인조실록』 인조 15년(1637) 9월 21일 기사는 “김진표가 제 할미와 어머니를 협박하여 스스로 죽게 하였다.”라고 했다. 또 이극익의 『연려실기술』, 「인조조고사본말」에는 김진표가 그 아내를 다그쳐 스스로 죽게 하고, 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적병이 성 가까이 왔으니 죽지 않으면 욕을 볼 것이라고 해서 두 부인이 이어서 자결하고 같이 있던 일가 친척 부인들도 죽었는데 진표는 죽지 않았다고 했다. 이극익은 김진표가 집안 여자들을 다그쳐 죽게 했다는 말은 김경징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쌓여서 그 어머니와 아내의 절개까지 아울러 깎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수 있었다. 그러나 쫓기어 서울로 돌아오에 미쳐 오랑캐가 말을 지키지 않아 옥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시아버지 순찰공이 병상에 있으니 의리상 차마 떠나서 자신을 보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달 25일에 행궁 서루에서 자결했는데 집안에서 함께 죽은 사람이 열 명이 넘었다. 아들 선흥이 빠져나갔다가 남은 시신을 거두어 그해 10월 22일 병진에 정공의 묘에 합장하고 나에게 묘지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공의 집안은 대대로 충효가 두터워 절조를 기려 정려를 내린 것이 이어졌다. 공은 바르게 행동하여 언제나 바르게 행하는 것을 변치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다행히 먼저 죽어 이러한 난리를 겪지 않았고 부인은 목숨을 버리고 지조를 지켜 정려를 받았다. 이는 공에게 영광이니 무슨 한이 있겠는가? [...] 부인은 만력 무자 8월 22일에 태어나 50세를 살았다. 2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선흥이고 차남은 선흥이다. 딸은 진사 김진표에게 시집갔는데 부인을 따라 죽었다.²⁷⁾

저는 왕후의 언니요, 증신의 아내입니다. 평생 부귀를 누리고 긴긴 봄을 노래와 춤으로 보냈으니, 오늘날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어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아아, 제 죽음이 과연 다른 사람과 같다면 정렬이 스스로 드러나고 제 뉘도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못난 제 자식은 일 처리가 뒤바뀌어 적의 칼날이 닳치기도 전에 제게 칼을 주어 죽게 했지요. 스스로 자결한 것이 아니니 어찌 남의 말이 없겠습니까? 남이 권해서 이룬 정절을 세상이 모두 비웃고 욕하는데 하물며 오늘날 정문을 내리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²⁸⁾

27) 이석, 「정부인 서원 한씨 묘지(貞夫人西原韓氏墓誌)」, 『현곡집 지문(玄谷集誌文)』, p. 6, 한국고전번역원 DB. “嗚呼, 吾友故觀察使鄭公百昌德餘既卒之明年丙子, 金兵猝至, 貞夫人西原韓氏從子女避入江都, 丁丑正月, 江都陷, 時山城已送款, 虜約不犯王族朝士家屬, 夫人以仁烈王后親姊, 卽入保嬪宮, 勢在必免. 及被驅還京, 夫人猶慮其言不謹而近於辱, 又念舅氏巡察公方病在床, 義不忍違去得全, 以其月二十五日, 自盡于行宮之西樓, 閣門同死者十數人. 子善興得脫, 收奉遺體, 以其年十月二十二日丙辰, 祔于公墓, 屬余誌焉. 嗚呼, 公家世篤忠孝, 錄節表閭相望, 公直已行世, 常有履正不渝之志, 幸其先沒, 弗蹈斯難, 而夫人舍命自請, 旌楔比櫛, 於公爲有光, 夫何恨焉. [...] 夫人生萬曆戊子八月二十二日, 得壽五十. 有二男一女, 男長卽善興, 次善弘, 女適進士金震標, 從夫人死之.”

28) 박희병 (2005), p. 520. “我本王妃之兄, 重臣之妻也. 富貴平生, 歌舞長春, 則豈料今日人事若此. 嗟余一死, 果若他人, 則貞烈自彰, 魂亦有光. 吾兒不良, 處事顛倒, 賊鋒未迫, 先投一劍. 則非我自處, 豈無人言. 勸成貞節, 世皆笑罵, 矧伊今日, 旌門何事.”

이식이 기록한 한씨의 묘지문은 한씨의 생애 전반을 정리하기보다 한씨가 자결하고 정려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이 기록에 의하면, 한씨는 1588년에 태어나 1637년에 자결했는데 이때 집안에서 같이 죽은 여성이 무려 10명이 넘었다. 아들 정선홍은 빠져나갔다가[得脫] 돌아와서 시신을 수습한 뒤 그 해 한씨를 정백창의 묘에 합장하고 이식에게 묘지를 부탁했다. 그렇다면 이 묘지가 기록된 것은 정백창이 죽은 다음 해인 1637년이다. 이식은 한씨가 지조를 지켜 정려를 받은 것이 남편에게 영광이 되니 무슨 한스러움이 있겠느냐고 했다. 이식은 한 집안 여성이 10명이 넘게 죽은 것에 대해서도 정선홍이 빠져나갔다가 돌아와 시신을 수습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일인 듯 기록하고 있다. 아들 정선홍은 명망 있는 문인을 찾아가 묘지를 부탁해서 집안 여성의 순절을 가문의 영광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강도몽유록」에서 한씨는 아들이 죽음을 권했으며 그렇게 해서 이룬 정절은 비난거리가 되었다고 아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한다.²⁹⁾ 이식은 한씨의 죽음이 남편에게도 영광이 되니 무슨 한이 있느냐고 했지만 「강도몽유록」에서 한씨는 아들이 칼을 주며 죽게 했는데 정문을 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당시 많은 논란을 낳은 윤선거의 부인 이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남아 있다. 여기서는 『강화지』의 기록을 인용한 이공익의 기록과 아들 윤증의 기록을 보기로 한다.

(이씨는) 갑곶의 수비가 무너진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그때 선거는 위사(衛士)의 항오 속에 있어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아

29) 이공익의 『연려실기술』 「인조조고사본말」에는 정선홍이 어머니 한씨가 아니라 아내 권씨에게 죽기를 강요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권씨가 청병이 쳐들어온 것을 알고 아버지 친구인 회은군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했으나 회은군이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정선홍은 눈을 부릅뜨고 빨리 죽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병자호란 당시 공조 좌랑이었던 석지형은 「남한해위록」에서 죽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부녀자들이 집안의 강박을 받기도 했는데 억지로 지킨 절개를 귀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강요된 죽음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한씨도 그러한 죽음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영삼 (2013), 「역주 《남한해위록(南漢解圍錄)》」, 전남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논문, p. 105.

들 증의 나이 겨우 9살이었는데 손으로 옷과 이불을 정돈하여 조용한 곳에 빈소를 정하고 사방 구석에 돌을 놓고 가운데에는 숯과 재를 덮은 후에 통곡하며 하직하고 나서 계집종의 등에 업혀 나왔다. 뒤에 이민서(李敏叙)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씨가 조용히 자결한 것은 위급한 때에 죽음을 당한 데 비해 더욱 가상한 일입니다.” 하였는데, 대개 그 죽음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말한 것일 것이다. 정려하였다. 『강화지』³⁰⁾

유인은 만력 정미년(1607) 윤6월 16일에 태어났다.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빼어났으며, 네다섯 살 무렵부터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민첩하며 말씨가 차분하여 어른스러웠다. [...] 영리하고 이해가 빨라 길쌈이나 바느질 같은 집안일은 눈으로 한 번 보기만 하면 곧바로 배웠는데 정교하지 않음이 없었고, 문자는 귀에 스치기만 해도 잊지 않아 『소학』, 『열녀전』 등의 책은 읽지 않은 게 없었다. 성품 또한 명민하고 의리에 밝아 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행실들을 다 갖추었다. [...] 강도의 난리 때에 적병이 강을 건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부군과 영결하기를, “적의 칼날에 죽느니 미리 자결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노비들을 불러 어린 자식들을 부탁하며, “부디 잘 돌봐다오. 죽고 사는 일에는 명이 있다.”라고 하였다. 뒷일을 처리하고 나서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나가게 한 뒤 자결하니, 정축년(1637) 정월 23일이었다. 이듬해 무인년(1638) 2월 27일에 부친 생원공의 묘소와 같은 언덕의 왼편에 안장하였다. 기유년(1669)에 부군에게 관직이 추증됨에 따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되었고, 금상(今上) 7년 신유(1681) 7월에 정려(旌閭)하라는 명이 내렸다.³¹⁾

30) 이극익, 「인조조고사본말」, 『연려실기술』, “聞甲申失守, 自縊死. 時宣學在衛士伍未歸, 子拯年方九歲, 手整衣衾, 殯屏處, 置石四隅而中施炭灰, 然後哭辭, 負婢背而出. 後李敏叙言于上曰, 李氏之從容引決, 此臨急殺身, 尤可尚也. 蓋其死最先, 故云旌閭. 江華志.”

31) 윤증, 「선고비묘지(先考妣墓誌)」, 『명재유고(明齋遺稿)』 권37, p. 19, 한국고전번역원 DB. “孺人生於萬曆丁未閏六月十六日. 生而明粹, 自四五歲時, 舉止端敏, 言語靜慎, 已如成人. [...] 聰悟過人, 女紅之事, 一見輒能, 而無不精妙. 文字過耳輒不忘, 如小學列女傳等書, 無不通覽. 性又明達, 曉義理, 女則甚備. [...] 江都之難也, 聞賊兵渡江, 卽與府君訣曰, 與其死於賊鋒, 不如早自決, 招婢輩託以諸幼曰, 須善護之, 死生則有命焉. 既處置後事, 令引出諸幼, 而後自決, 卽丁丑正月二十三日也. 葬以明年戊寅二月二十七日, 考生員公墓同原而在其左. 己酉府君有贈典, 從贈淑夫人. 今上七年辛酉七月, 命旌表門閭.”

나라에 훌륭한 장수가 없고 민심마저 잃었으니, 패망하여 어디로 달아난단 말입니까? [...] 하루아침에 전란이 일어나 만백성이 짓밟히고 죽었는데 저 같은 연약한 여인의 목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기꺼이 자결을 결심하고 낮이 구천에 들어가니 제 이름은 이미 향기로웠으니 어찌 영광스럽지 않으리요?³²⁾

이공익은 순절한 부인들에 대해 기록하면서 이씨의 죽음을 가장 앞에 놓았다. 이 기록에 의하면 윤증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비가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이씨가 자결했다. 윤증은 이씨가 윤선거와 영결하며 뒷일을 부탁하고 자결한 것으로 기록했다. 성이 함락된 뒤 이씨는 자결하고 윤선거는 종의 옷으로 갈아입고 달아났다는 소문과 달리 이씨는 남편과 미리 영결하고 자식들까지 부탁한 뒤에 자결했다는 것이다. 「강도몽유록」에서 이씨는 매우 탁월한 여성으로 재현된다.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의리가 있고 말은 서릿발처럼 매섭다고 했으며 가장 많은 말을 한다. 이씨는 도망갈 데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기꺼이 죽었다고 한다. 이씨는 남편인 윤선거는 거론하지 않고 시아버지 윤항만을 언급한다. 이에 대해 척화신을 대표하는 윤항을 칭송함으로써 인조와 친청파 공신세력이 내세운 공적 기억의 허위를 고발한 것³³⁾이라거나 윤항을 내세워 가문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³⁴⁾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염라대왕은 앞서 윤방의 첩에게 옛 사람에게서도 찾기 어려운 절의를 실천했다고 하면서도 임금을 배반하고 적에게 목숨을 구한 남편 때문에 그 첩을 지옥으로 보낸다.³⁵⁾ 남편의 잘못에 첩을 연좌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씨에게는 남편 윤선거는 언급하지 않고 시아버지 윤항의 절의를 받아 지켰기 때문에 극락세계로 보낸다고 한다.

32) 박희병 (2005), pp. 527~528. “國無良將，且失人心，則敗亡何逃。[...] 一朝風雨，萬姓魚肉，則況此纖腰，性命何保。甘心自決，魂入重泉，則名已香矣，豈無光歟。”

33) 김정녀 (2010), p. 225.

34) 김일환 (2013), p. 281.

35) 박희병 (2005), p. 521. “大禍將迫，引手自決，求諸古人，鮮有此類。而爾之夫，忘君拜賊，苟且偷生，罪固重矣，難免其坐，是以投之地獄，永不還生云。”

주운의 강직한 절개와 호인의 대의를 계승한 이가 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는가? 이 사람이 바로 네 시아버지다. 너 역시 그 의리를 배우고 절개를 본받아 절의를 위해 죽었으니, 그 절개와 의리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를 극락세계에 살게 하노라.³⁶⁾

이씨는 염라대왕의 말을 전하며 시아버지 윤향을 언급한다. 하지만 윤선거에 대해 침묵하고 윤향의 절의를 언급했다고 해서 윤씨 가문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윤선거는 윤향과 이씨 부인이 언급되는 순간 떠오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윤향이 언급되는 것은 윤씨가 다른 부인들과 달리 아직 정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윤향의 절의를 가져와서라도 윤씨의 죽음을 보상해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이씨는 유씨와 한씨 두 부인들에 비하면 한참 뒤인 1681년이 되어서야 정려를 받았다.

이상에서 보듯 묘지명을 비롯한 다른 기록에는 순절 여성들이 어려서부터 부덕을 갖추고 뛰어난 식견이 있었으며 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확고하여 한 점 회의도 없이 자결하고 정려를 받은 열녀들로 재현되어 있다. 이상의 기록들은 살아남은 남성이 순절한 여성의 기록을 남겨 가문의 영예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글을 부탁하는 남성과 글을 부탁받고 쓰는 남성과의 사이에 일종의 공모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강요된 죽음이었거나, 남편은 달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순절이 자발적 의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한다. 글을 부탁받은 김육이나 이식은 글을 부탁하는 김진표나 정선홍을 두둔함으로써 이들이 세간에서 받았던 의혹을 잠재우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정절을 강박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을 부모나 아내의 사후 수습을 잘한 인물로 다시 자리매김해주고 있다. 여기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여지는 없다. 그러나 「강도몽유록」에 재현된 여성들은 절의를 지켜야

36) 박희병 (2005), p. 528. “朱雲直節，胡寅大義，非有此人，則繼者其誰，是爾之舅父也。爾亦體其義，法其節，死於節義，則其節也其義也，不可不褒獎，故使之逍遙於極樂世界云。”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살아있는 남편이나 아들을 두둔하지 않고 비판한다. 「강도몽유록」의 유씨는 남편을 비판하고, 한씨는 평생을 부귀 속에 살다 뜻밖의 죽음을 당한 것을 당황스러워하며 아들의 강권으로 죽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씨는 남편을 언급하는 대신 염라대왕, 상제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운항 덕분에 극락에 살게 된 사정을 장황하게 이야기한다. 절의를 실천한 의연한 죽음과 그로 인한 가문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기록들과 달리 「강도몽유록」은 순절여성들이 절의를 지키기 위해 자결하면서 떠올렸을 법한 생각과 느꼈을 법한 감정과 겪어야 했을 고통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주고 있다. 이들 죽은 자들의 목소리는 어떤 정치 세력을 대변하기 위해 동원된 목소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대변하는 목소리이다. 작가는 여성들의 목소리로 여성이 경험한 전쟁을 직접 이야기하게 했다. 이들은 전쟁을 통해 세계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을 경험했다. 앞서 살펴본 여성들의 발화는 유교 여성 주체의 내적 균열을 드러낸다. 그런데 「강도몽유록」은 유교 여성 주체의 균열을 보여주고, 그것이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그런가? 이제 남겨둔 문제, 「강도몽유록」이 왜 실패한 애도의 기록인지를 결론 삼아 살펴보기로 한다.

IV. 결론 : 실패한 애도, 그럼으로써 확장되는 의미

「강도몽유록」의 플롯은 꿈 이전, 꿈, 꿈 이후로 전개되며, 꿈 속의 세계는 여성들이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꿈 속의 서사는 부인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난 뒤 기녀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본성이 어질고 자애로운 청허선사는 전쟁으로 강도(江都)가 심하게 침략당해 시신을 매장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을 가련하게 여겨 이를 수습할 생각으로 강화도로 간다. 그리고 꿈속에서 모임을 엿본다. 그가 꿈속에서 엿본 것은 자신이 수습하려 간 죽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그는 끝내 엿

보기만 하고 죽은 자들을 위로하거나 시신을 수습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돌아 나온다. 청허선사가 강화도에 간 것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인 없는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죽은 자들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청허선사는 애도에 실패한다.

청허선사의 꿈에 등장한 순절 여성들 가운데는 이미 국가로부터 정려를 받은 부인들도 있지만 아직 정려를 받지 못한 부인들도 있었다. 이들을 배려하여 작가는 염라대왕과 상제를 등장시켜 보상해 주고자 한다. 작가는 윤선거의 부인 이씨의 발언을 통해 상제가 전란으로 순절한 사람이 많은 것을 측은히 여겨 절개를 지키고 의리를 실천한 자들은 천당으로 보내 안락을 누리게 했다고 한다. 이 말은 절의를 지킨 이들의 죽음에 대해 하늘이 보상을 해 준다는 의미이다. 순절한 부인들은 앞서 기꺼이 자결했다고 하며 절의를 지켜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상제의 이 발언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 같지 않다. 마지막 부인의 말이 끝난 뒤의 광경을 작가는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이다.

아아, 자리에 있던 모든 부인이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자 한숨을 쉬는 이도 있고,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으며, 통곡하는 이도 있었다.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통곡한 것들을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³⁷⁾

이들은 계속해서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들이 위로받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때 기녀가 등장한다. 그녀는 기녀로서 향락을 누리고 살다가 절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남자를 섬기며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그녀는 부인들의 절개와 지조를 칭송하고 나라가 수치를 당해도 충성과 의리를 지키는 신하가 없는데 “늬름하게 정절을 지킨 것은 오직 부인들이니 이 죽음은 영예롭다”³⁸⁾고 한다. 조정의 신하들도 지키지 못한 절의를 부인들이 지켰다는 것이다.

37) 박희병 (2005), p. 530~531. “嗚呼，滿座婦女，莫不各陳其懷，則或嘆息也，或流涕也，或痛哭也。其所嘆息者流涕者痛哭者，莫不勝記。”

38) 박희병 (2005), p. 532. “貞操凜烈，惟有此婦，則是死榮矣，何用憾焉。”

이 말에 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위로받았을까? 작가는 기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좌중에 있던 부인들은 일시에 통곡을 터뜨렸으며 그 소리가 참혹하고 가엾어서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고 썼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정절의 의무가 없는 기녀를 등장시켜 순절을 칭송하게 했을까 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녀를 작가의 분신³⁹⁾으로 보기도 하고 남성인 청허선사를 대신해서 여성 원혼들을 위로하고 죽음을 의미화하는 존재로 최종 평가자⁴⁰⁾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했다. 이본 가운데 기녀가 말을 끝내며 모인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는 것으로 끝낸 이본⁴¹⁾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기녀는 순절한 여성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왜 위로의 주체를 기녀로 설정했을까? 기녀의 등장은 정절을 위해 죽어야 했던 여성들과의 거리를 확인시켜주면서 여성들의 순절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편 정반대로 정절과 거리가 먼 기녀로부터 칭송을 듣게 되는 아이러니를 통해 진정한 위로나 애도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여줄 수도 있다. 기녀 역시 강화도에서 정절을 지키다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외모가 전혀 손상되지 않았으며 원통함이나 근심도 없고 심지어는 웃으면서 말한다. 이토록 다른 재현은 양반 부녀와 기녀의 거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며, 이들 사이의 공감이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 자리에 있던 여성들은 끝내 위로받지 못했다. 마지막에 터져 나온 통곡성이 여전히 그들의 원망이 해소되지 않았음을⁴²⁾ 시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허선사는 이들에게 들킬까 봐 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돌아 나온다. 그리고 놀라

39) 정충권 (2007), p. 84.

40) 장진엽 (2020), p. 280.

4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필사본 『동국야사』 소개 「강도몽유록」은 “妾爲左右，歌數曲。”으로 끝나며, 각몽 부분이 탈락되어 있다. 김정녀에 의하면 동국대도서관(경주) 소장 「강도몽유록」도 기녀의 노래로 종결된다. 김정녀(2009), p. 11.

42) 조혜란 (2001), p. 340. 작품 속의 통곡은 작품을 무겁고도 장중하게 장식하는데, 결구의 통곡은 문제와 감정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면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보여주며 해소되지 않은 원망을 비극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보았다. 장진엽 (2020), p. 280, 이들의 울음은 병자호란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무의식적인 은유라고 보았다.

꿈에서 깨어난다. 이것은 애도의 실패를 의미한다.

「강도몽유록」의 여성들은 정절을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고 아쉬울 게 없다고 한다. 이들에게 정절 이데올로기는 유교 여성 주체로 교육 받으면서 내면화한 이념이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 조정이나 관료, 시아버지와 아들과 남편의 비겁함을 보았고 자신이 믿었던 세계가 깨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다고 정절 이데올로기에 대한 회의를 표현하지 않는다. 자신이 정절을 지키다 죽은 것을 남편이 몰라 줄까 걱정하고 오랑캐에게 저항하지 않고 잡혀간 부인을 비난한다. 만약 정절 이데올로기에 회의를 갖는다면 자신들의 죽음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탄식과 분노, 회한과 슬픔에 젖어 있다. 이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죽음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절을 지켜 죽었으니 영광이라는 말에 통곡으로 답하는 것이다. 이는 정절을 오해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정절로 죽은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영예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⁴³⁾ 그런 점에서 「강도몽유록」은 유교 여성 주체의 균열 지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아울러 순절 여성의 원혼에 대해 국가는 정려를 내려 애도했다고 생각하지만 「강도몽유록」은 순절 여성의 원혼이 결코 쉽게 애도될 수 없음을 애도의 실패를 통해 증명한다.

「강도몽유록」의 작가는 여성의 전쟁 경험을 여성들의 목소리로 말하게 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자를 청허선사라는 불교의 승려로 설정하여 유교적 이념과는 다른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했다. 「강도몽유록」은 원혼들을 애도할 주체로 청허선사를 설정했다. 그러나 청허선사는 자신의 눈과 귀를 열어놓았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 터져 나오는 통곡성을 듣고 조용히 나왔을 뿐이다. 작가는 선불리 이들을 애도하려 하지 않

43) 최영 (2018), 「〈강도몽유록〉에 나타난 공사관(公私觀)의 변화 조짐」, 『어문논집』, 84, p. 25 각주. 마지막 부분의 통곡은 여성들이 외적으로는 숭고한 가치를 수호한 명예로운 죽음을 행했지만, 내적으로는 살고자 하는 욕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요동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치의 수호를 명령하는 권력에 설득되지 않은 인간적인 공포와 죽음에 대한 억울함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는 정절 담론에 발생한 균열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고 다만 그 눈과 귀를 열어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참혹한 형상을 보게 했을 뿐이다. 이것이 「강도몽유록」이 강화도에서 죽은 순절 부인들을 대하는 방식이다. 작가는 이들을 애도 불가능한 존재로 재현함으로써 그 참혹함을 더 각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애도에도 한계가 있다. 전쟁 당시 강간 피해 여성이나 청에 포로로 끌려간 여성들은 애도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도몽유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동국야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강명관 (2009), 『열녀의 탄생』, 돌베개.
- 김경미 (2022), 『플롯의 발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김기동 (1965), 「〈江都夢遊錄〉攷」, 『논문집』, 2, 1965, pp. 125~139.
- 김육, 『잠곡선생유고』, 한국고전번역원 DB.
- 김일환 (2013), 「숨긴 것과 드러낸 것-‘변호’의 텍스트로 ‘강도몽유록’ 다시 읽기」, 『민족문
학사연구』, 51, pp. 257~286.
- 김정녀 (2009), 「신자료 국문본 〈강도몽유록〉의 이본적 특성과 의미」, 『고소설연구』, 27,
pp. 5~37.
- ____ (2010), 「병자호란의 책임 논쟁과 기억의 서사」, 『한국학연구』, 35, pp. 205~235.
- 박희병 (2005),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 ____·정길수 (2013), 『이상한 나라의 꿈』, 돌베개.
- 백지민 (2016), 「순절 담론의 서사화, 〈강도몽유록〉」, 『용봉인문논총』, pp. 109~141.
- 윤증, 『명재유고』, 한국고전번역원 DB.
- 이금익, 『연려실기술』, 한국고전번역원 DB.
- 이식, 『현곡집 지문』, 한국고전번역원 DB.
- 이영삼 (2013), 「역주 《남한해위록(南漢解圍錄)》」, 전남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
논문, pp. 1~139.
- 장경남 (2003), 「병자호란의 문화적 형상화 연구-여성 수난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1,
pp. 193~218.
- 장진엽 (2020), 「『강도몽유록』 속 여성 발화자의 기능과 그 의미」, 『한문학논집』, 57, pp.
255~286.
- 정충권 (2007), 「『강도몽유록』에 나타난 역사적 상처와 형상화 방식」, 『한국문학논총』, 45,
2007, pp. 67~90.
- 조혜란 (2001), 「〈강도몽유록〉 연구」, 『고소설연구』, 11, 2001, pp. 329~356.
- 최영 (2018), 「『강도몽유록』에 나타난 공사관(公私觀)의 변화 조짐」, 『어문논집』, 84, pp.
5~42.

Abstract

A record of failed mourning, *Gangdomongyurok*

Kim, Kyungmi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article examines how *Gangdomongyurok* represents women who died for their chastity on Ganghwa Island.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nding where Monk Cheongheo who went to Ganghwa Island to mourn those who died in the war returns without mourning women who died to keep their chastity. This paper suggests it means a failure of mourning and tries to examine what the author wanted to say through the failure of mourning. For this, this article analyzes the speeches of women in *Gangdomongyurok* and compares them to those in other records such as epitaphs.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women in *Gangdomongyurok* openly criticize their husbands and sons and wails in resentment even accepting that it is natural of them to die for their chastity. This reveals the cracks in the Confucian female subjects, and praising them for their chastity is neither comforting nor mourning.

Keywords: *Gangdomongyurok*, mourning, failed mourning, martyred woman, chastity, Confucian female subjects

논문 투고일: 2025년 04월 07일
심사 완료일: 2025년 04월 14일
계재 확정일: 2025년 04월 14일